

농어촌공 전남, 농업인 단체장 6명 '명예본부장' 위촉

대규모 수상태양광사업 확대... 발전수익은 수리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재투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3월23일(월) 관내 주요 농업인 단체장 6명을 대상으로 '명예본부장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며 농민단체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된 명예본부장은 홍영신(한국농어촌공사 전남연합회장), 김매숙(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장), 최원섭(한국농촌지도자 전남연합회장·전남 농업인단체 연합회 상임대표), 김경일(한국생활개선 전남연합회장), 김무상(한국쌀전업농 전남연합회장), 류진호(한국 4-H 중앙연합회장) 등 총 6명이다.

행사는 전남의 수자원 관리 현황과 재해대응 체계를 점검을 시작으로 명예본부장 위촉식,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간담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재식 본부장은 공사의 현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농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세를 폐지한 이후로 관

련 정부 예산은 사실상 동결된 상태"라며, "이로 인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발생하는 적자 규모가 매년 2,000억 원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사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하며 버텼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특히 최근 농업인에 대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를 5%에서 2.5%로 인하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연간 2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공사는 이러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농민 지원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제시했다. 공사가 보유한 담수호 및 대형 저수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여 사업시행사·공사·지역 주민이 수익을 나누는 구조이다.

특히 공사는 태양광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사 몫의 수익금을 다시 농업 현장에 투입한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재투자함으로써 발전 수익이 궁극적으로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과



서비스 향상 혜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설명을 들은 농민단체장들은 공사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과 농민을 위한 수수료 면제 등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민단체장들은 "재정적자를 해결하면서도 그 수익이 다시 농업기반시설에 재투자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진정성을 느꼈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팜 보급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재식 본부장은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청년 농업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은 우리 농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며, "행복 동반자인 명예본부장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전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원 기자



HD현대삼호가 24일 호태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2025년 매출 8조 714억 원, 영업이익 1조 3,628억 원의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등을 처리했다.

HD현대삼호,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매출 8조 진입, 영업이익 1조 3,628억 원 달성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는 24일 호태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주주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25년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에 승인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HD현대삼호는 지난해 매출 8조 714억 원과 영업이익 1조 3,628억 원을 달성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주주지체 제고를 위해 보통

주와 우선주에 대한 주당 8,130원의 현금배당도 결의했다.

한편,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종윤 HD한국조선해양 재정부문을 사내이사로, 김소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기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김재을 사장은 "친환경 기술과 AI 전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영암/김희선 기자



제156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개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심의·의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제청)은 3월 26일 광양경제청 상황실에서 제156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의장 강정일 전남도의원)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2025 회계연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산검사를 수행할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제3차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도 함께 진행되었다. 제3차 경관계획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체

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관 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의 특성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경관 형성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합위원들은 경관계획이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산업·주거·관광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조합회의와 긴밀히 협력하여 광양만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선·후배 이어온 4-H 정신, 강진에서 화합으로 꽃 피우다

장학금 기탁·출산지원금 전달로 의미 더해

한국4-H강진군본부(회장 윤윤근)가 지난 19일 강진 K-스튜디오호텔에서 선·후배 회원과 평생회원, 후원회원이 함께하는 '2026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4-H강진군본부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4-H강진군본부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역대회장 이종주, 강두재 회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두 역대회장은 그동안 4-H 조직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으며, 참석한 회원들은 선배들이 이어온 4-H 정신과 봉사·협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국4-H강진군본부는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으며, 또한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4-H 회원 2명에게 각각 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꿈과 도전을 응원했다. 아울러 4-H연합회 회원 자녀를 출산한 회원을 축하하고 건강한



4-H후원·평생회원을 위한 한국4-H강진군본부 화합의 날

가정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응원하기 위해 9명에게 각각 20만원의 4-H미래씨앗 상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후배가 서로를 살피고 격려하며 따뜻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이어져 4-H 특유의 정과 공동체 정신을 느끼게 하는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강진/손경설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전입 직원 대상 '지역 알기 프로그램' 실시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면)는 지난 25일 영광 일원에서 신규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알기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영광군으로 새로 전입하여 온 한빛본부 직원들의 조기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빛본부'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영광 역사·문화 전문가 초청 특강, 본부장 비전 공유 특강에 이어 범

성포와 백수해안도로 등 영광의 주요 명소를 답사하는 현장 탐방으로 이루어졌다. 참여한 직원들은 영광의 역사적 배경을 학습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직접 확인하며, 단순한 근무지를 넘어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빛본부 관계자는 "전입 직원들이 영광 지역의 일원으로서 애착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프



그램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한빛본부가 되기 위해 소통 점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제65회 2026. 4. 10.(금) ~ 4. 13.(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4회 2026. 4. 22.(수) ~ 4. 24.(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구례군공설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제65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 제34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구례군